

# 마무리 훈련 끝낸 호랑이들, 진짜 경쟁 지금부터



‘체력’에 초점을 맞추고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 사진은 윌리엄스 감독의 격려 속에 체력훈련을 하는 김선빈(왼쪽 사진)과 한 조를 이뤄 캠프를 치른 박준표, 이준영, 김현준, 임기영의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 공·글러브 내려놓고 2주간 체력 단련...윌리엄스 감독 선수 맞춤 지도 코로나 영향 일정 없이 개인 훈련...이민우·임기영 등 선수 6명 결혼

‘호랑이 군단’의 2020 마무리캠프가 마무리됐다. 지난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됐던 KIA 타이거즈 1군 선수단이 지난 30일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다.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방식의 캠프였다. 공과 글러브를 내려놓은 선수들은 ‘체력’에 초점을 맞추고 2주의 시간을 보냈다. 훈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향이 비슷한 선

수끼리 조를 이뤄 호흡을 맞췄고, 윌리엄스 감독과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단점을 채우기 위한 맞춤형 스케줄이 준비됐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유연성, 체중관리, 부상 등 각각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슬땀을 흘렸다. 생각 이상으로 선수들의 반응은 좋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부상으로 오랜 시간 기술훈련을 하지 못했던

이창진도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며 “땀이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하다. 12월, 1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기술은 조금씩 천천히 만들면 된다”고 새로운 마무리 캠프를 이야기했다. ‘재충전’에 초점을 맞춘 시간을 뒤로하고 선수들은 12, 1월 휴식기를 맞는다. ‘휴식기’라고 하지만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 선수들은 마무리캠프 분위기를 이어 개인적으로 체력, 웨이트 훈련 등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선수들의 책임감은 더 커졌다. 28일 랜선으로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치

르며 팬들을 만난 선수들에게 12월 공식 일정은 없다. 코로나 19 여파로 예정된 행사도 축소됐다. 매년 선수단 전원이 참가했던 ‘사랑의 쌀 나누기’는 대표 선수 2-3명만 참가해 쌀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대신 바쁜 주말이 기다린다. 오는 6일 문선재를 시작으로 선수들의 결혼식이 이어진다. 문선재는 3년 연애 끝에 낮 12시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3층 임페리얼홀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12일에는 투수 이민우와 서덕원이 대학시절부터 만났던 연인과 각각 광주와 서울에서 백년가

약을 맺는다. 이민우는 오후 12시 30분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 3층 펠리체홀에서, 서덕원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서울 서초구 KW컨벤션센터 4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결혼식을 한다. 19일에는 임기영이 오후 2시 30분 광주 드메르 웨딩홀에서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고, 대학시절 가정을 이뤘던 ‘두 아이의 아빠’ 황인준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 서울강남구엘리에나호텔에서 늦깎이 결혼식을 올린다. 1월 4일에는 함평 챔피언스필드가 다시 움직인다. 2021 신인 선수들과 군 제대 선수들이 워터마이어 수석코치의 지도 속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시상식 휩쓴 KT ... KIA 최형우 타율상

### KBO 시상식...로하스, MVP 등 4관왕·신인왕 소형준

예상대로 2020 KBO 최우수선수·신인왕 트로피가 KT 로하스와 소형준 품에 안겼다. 지난 30일 서울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20 KBO 시상식에서 로하스와 소형준이 각각 MVP와 신인왕으로 호명됐다. 같은 팀에서 MVP와 신인왕이 동시에 나온 건 1985년 해태 타이거즈(MVP 김성환·신인상 이순철), 1993년 삼성 라이온즈(김성래·양준혁), 2006년 한화 이글스(MVP·신인상 류현진), 2007년 두산 베어스(다니엘 리오스·임태훈), 2012년 넥센 히어로즈(박병호·서건창)에 이어 KBO리그 역대 6번째다.

두 선수는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막내팀’ KT 위즈의 창단 첫 포스트시즌행을 이끌었다. 로하스는 시즌 마지막 주 KIA 최형우에게 타격 1위 자리를 내줬지만 홈런 (47개), 타점 (135개), 득점 (116개), 장타율(0.680) ‘4관왕’에 올랐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 취재기자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로하스는 1위 71표, 2위 17표, 3위 4표, 4위 2표, 5위 1표를 받으면서 총점 653점을 획득해 NC 양의지(374점)와 두산 알칸타라(319점)를 따돌렸다. MVP는 1위부터 5위(1위 8점·2위 4점·3위 3



최형우

점·4위 2점·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2위 3점·3위 1점)까지 차등 배정했다.

프로 첫해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토종 투수 다승 공동 1위에 오른 소형준은 1위 112표 중 105표를 독식하면서 511점으로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소형준에 이어 LG 홍창기(185점), NC 송명기(76점)가 뒤를 이었다. 로하스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소형준은 트로피와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로하스는 구단 첫 MVP, 소형준은 2018년 강백호에 이어 팀의 2번째 신인왕이다. KBO리그와 퓨처스(2부)리그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KT는 타격 4개 부문 1위를 차지한 로하스와 홈런 1위 주권, 도루 1위 심우준까지 6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두산에서는 투수 2관왕 알칸타라(20승·승률 909)와 최다안타 1위 페르난데스(119개)도 3개의 타이틀을 가져갔다.

KIA는 최형우로 체면치레를 했다. 2016년에 이어 다시 한번 타격왕에 등극한 최형우는 “이 자리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여기 서있는 것 보니까 올 한해 잘 버텼다고 생각된다”며 “와이프, 아들,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긴장 늦추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 해주던 KIA 타이거즈 동생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끝까지 경쟁을 재미있게 했던 것 같다. 팬들도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팬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팬이 좋다”며 “다른 선배님 친구들보다 프로 1군에 늦게 발을 디뎠다. 그래서 더 땀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기회는 온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기회는 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인민날두’ 안병준 MVP 등극

### K리그2 시상식...리그 첫 북한대표 출신·승격 PO서 PK 골 성공

2020시즌 마지막골로 수원FC를 1부리그로 끌어올린 ‘인민날두’ 안병준이 K리그2 최고의 선수로 빛났다. 안병준은 지난 3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K리그2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호명됐다. 1·2부를 통틀어 북한 대표 경력을 갖춘 조총련계 선수가 MVP에 등극한 것은 K리그 38년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광구사, 안영학, 정대세가 K리그 무대에서 활약했었다. 안병준은 올 시즌 21골을 몰아넣으며 K리그2 득점 1위에 올랐다. 또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경남FC와의 승격플레이오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1-1을 만드는 페널

티킥을 성공시켰다. 이 골로 정규시즌을 2위로 마감한 수원은 3위 경남을 따돌리고 1부리그로 점프했다. 안병준은 “훌륭한 선수가 많은데 상을 받아서 기쁘다. K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이 상이 부끄럽지 않게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준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포함돼 MVP, 득점왕까지 ‘3관왕’에 올랐다. 레안드로(서울이랜드)가 안병준과 베스트11 공격수로 선정됐고, 공민현·김영욱·이창민(이상 제주), 백성동(경남)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욱은 최다 도움상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현범·정운·정우재(이상 제주)와 조유민(수원 FC)이 수비수, 오승훈(제주)이 골키퍼 베스트11의 영예를 안았다. 감독상은 1시즌 만에 제주유나이티드를 1부 리그로 되돌려 놓은 남기일 감독의 차지가 됐다. 남 감독은 최종전까지 16경기 무패(12승 4무) 행진 속에 1위로 결승전을 통과, 1부리그로 바로 승격됐다. 남 감독은 2014년 광주FC, 2018년 성남FC에 이어 3번째 승격을 지휘했다. 올 시즌 처음 제정된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은 제주의 2년 차 측면 공격수 이동룡이 받았다. 이동룡은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올리며 이상민(서울이랜드), 최건주(안산), 허승운(전남) 등을 따돌렸다. 별들이 빛난 자리, 작별의 무대도 마련됐다. 2003년 프로에 데뷔해 광주에서 MVP를 차지하는 등 18년간 K리그 무대를 누빈 ‘패트리엇’ 정조국(제주)이 이날 공로상 수상과 함께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메시 “내 안에 마라도나 있다”

### 오사수나전 득점 뒤 추모 세리머니...같은 클럽 유니폼 꺼입고 경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특별한 골 세리머니로 최근 심장마비로 별세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를 추모했다. 바르셀로나와 오사수나의 2020-2021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1라운드가 펼쳐진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 후반 28분 페널티 아크에서 그림 같은 왼발 슈팅으로 4-0으로 앞서는 쾨기 골을 터뜨린 메시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은 뒤 유니폼 상의를 벗었다. 숨겨둔 유니폼을 드러낸 메시는 양손에 입을 맞춘 뒤 팔을 뻗어 올리며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메시가 속에 입은 상의는 25일 심장마비로 향년 60세에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가 선수 시절 팀 중 한 곳인 아르헨티나 뉴웰스 올드 보이스의 유니폼이다. 뉴웰스 올드 보이스는 마라도나와 메시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마라도나는 1993년 잠시 뛰었



메시 SNS

고, 메시는 2000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하기 전 6년간 이 클럽의 유소년팀에서 성장했다. 경기를 마치고 메시는 인스타그램에 같은 포즈를 취한 마라도나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잘 가요, 디에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연합뉴스